

룰라 브라질 대통령 내외 주최 만찬답사

존경하는 룰라 대통령 각하 내외분,

그리고 귀빈 여러분,

우리 내외와 일행에 대한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브라질의 수출열기와 경기회복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무역흑자가 300억 달러를 넘어서고, 국민총생산이 4%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이제 21세기 경제지형을 바꾸어 놓을 BRICs의 일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각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BRICs는 이미 2등 국가가 아닙니다.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세계 1등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남미에서 처음으로 우주 로켓을 쏘아올린 것도 브라질의 국력을 보여 주는 쾌거일 것입니다.

이것은 각하께서 취임한 이후 최우선을 두고 추진해 온 경제정책들이 거둔 성과라고 생각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각하께서 주창하신 기아와 빈곤퇴치를 위한 유엔 특별기금 설치에 세계 100여개 국가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각하께서는 '포미 제로

(Fome Zero)’ 정책과 최빈국 부채탕감을 통해 모범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남미지역 통합과 G20 결성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과 브라질 국민의 저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 각하,

한국과 브라질은 지리적으로 먼 나라임에도 정치·경제적 발전과정에서는 서로 유사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양국 모두 오랜 군사독재를 물리치고 민주화를 이룩했으며,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도 성공적으로 극복했습니다.

한국은 힘차게 비상하고 있는 브라질과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찾고자 합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다방면에 걸친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협력을 원합니다. 이미 이곳에는 남미에서 가장 많은 5만명의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고,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대부분 진출해 있습니다. 각하께서 직접 방문해서 격려해 주신 것처럼, 이들 기업은 한국 기업이면서 브라질 기업입니다. 양국의 공동번영을 이끄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정상회담에서 이런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로 한 데 대해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귀빈 여러분,

처음 본 브라질리아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명성 그대로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여러분을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브라질의 번영, 그리고 양국간의 영원한 우정을 위한 건배를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